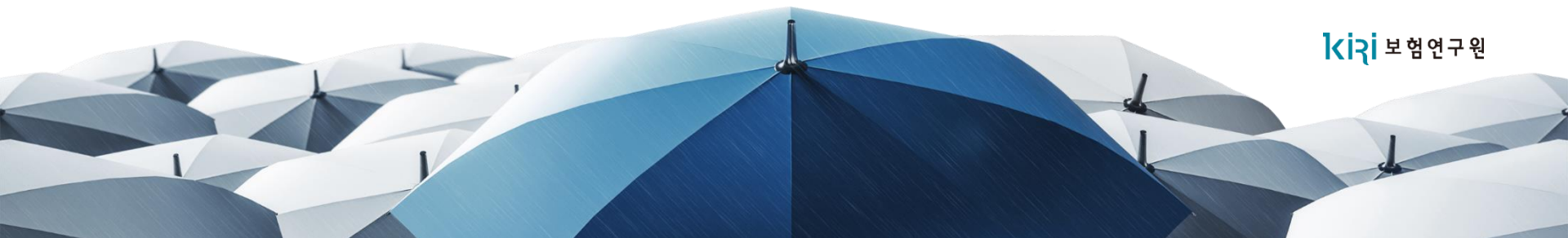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2023.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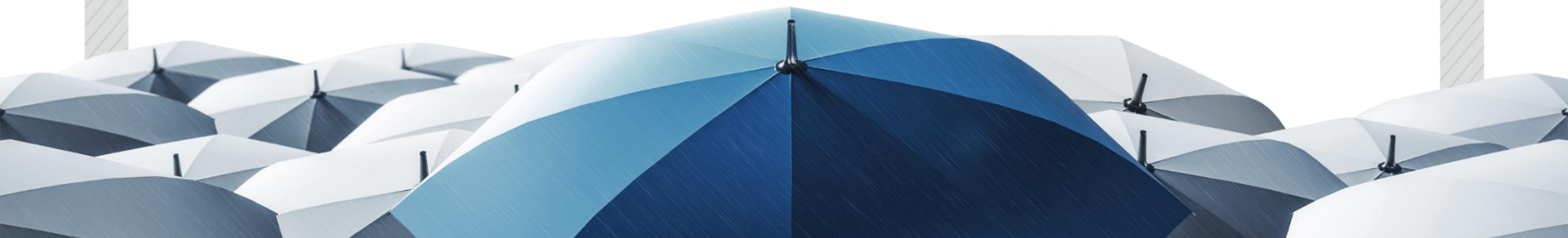


목 차

I. 현황

II.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III.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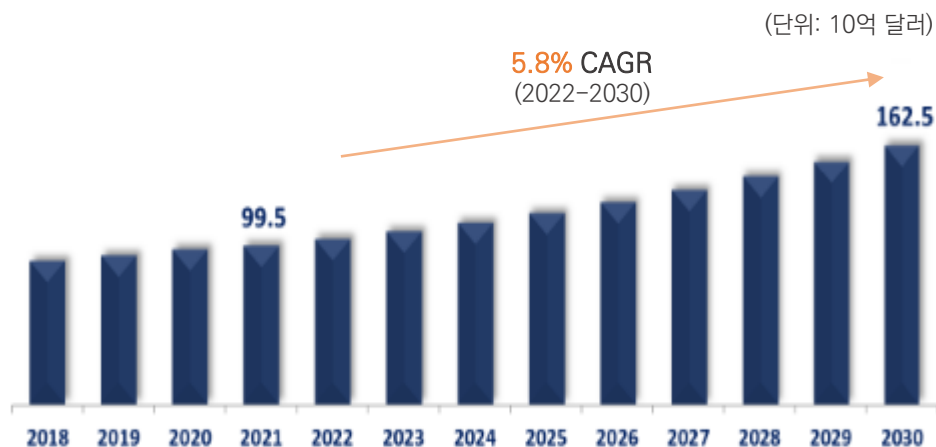


현황

반려동물 연관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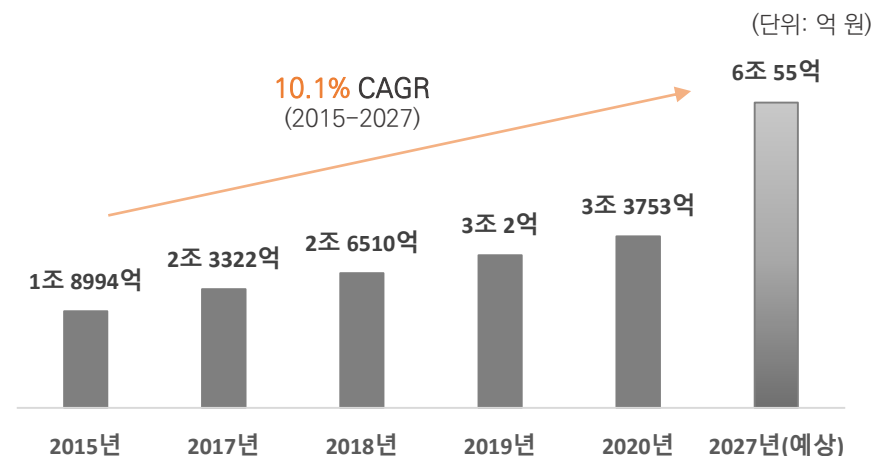
- 인구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동물의료시장을 포함한 연관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22년 국내 반려동물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됨 (개 545만 마리, 고양이 254만 마리)
-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시너지를 냄으로써 전체 시장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동물의료 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추이



자료: Acumen Research and Consulting(2022), 「Veterinary Services Market Analysis – Global Industry Size, Share, Trends and Forecast 2022-2030」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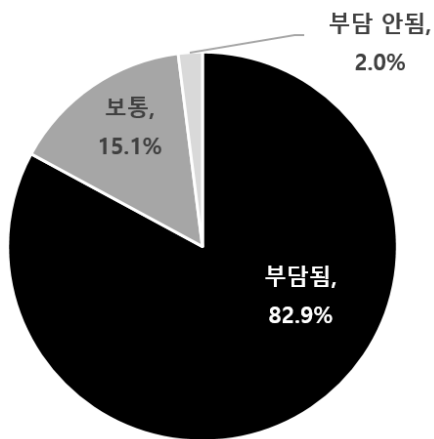


자료: 지인배외(2018),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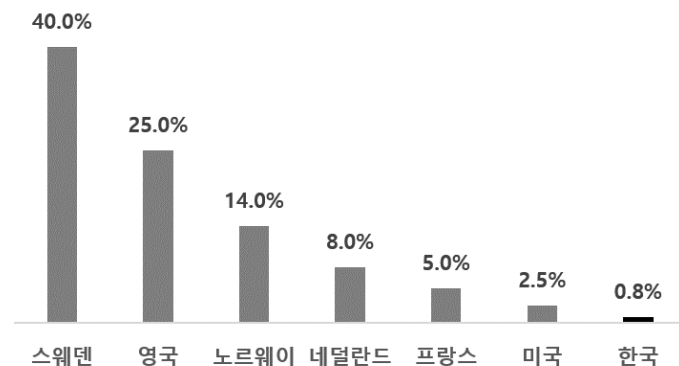
- 반려동물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반려동물 고령화·의료기술의 발달로 동물병원 진료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진료항목은 모두 비급여로 동물병원마다 7~8배의 진료비 편차가 존재함
 - * 1회 평균 진료비용 약 84,000원
- 그러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약 1% 정도임
 - * '22년 기준 시장규모: 보유계약 7.2만건, 원수보험료 287.5억원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정도



자료: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2021.11.24)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자료: 흥성원전국보(2022); Trupanion(2022); NAPHA(2022)

반려동물보험: 시장

- 반려동물보험시장은 수요 대비 규모가 크지 않음

* '22년 기준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287.5억)는 전체 손해보험(1,201,108억)의 약 0.024% 수준임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은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임

- 반려동물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술 및 입·통원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회사별로 자기부담률(20~50%), 가입금액, 보상한도 등이 유사함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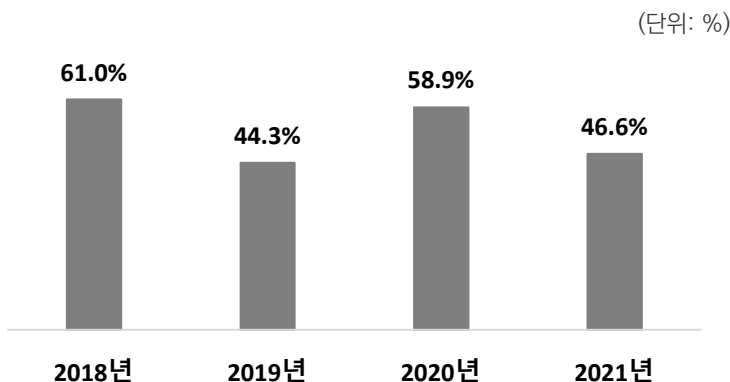
구분	원수보험료		
	'20	'21	'22
상위 1개사	124.5 (80.9)	173.5 (81.3)	225.1 (78.3)
상위 5개사	144.4 (93.8)	210.5 (98.7)	280.5 (97.6)
전체	153.9 (100.0)	213.3 (100.0)	287.5 (100.0)

주: () 안은 시장점유율임
자료: 손해보험협회

반려동물보험: 개체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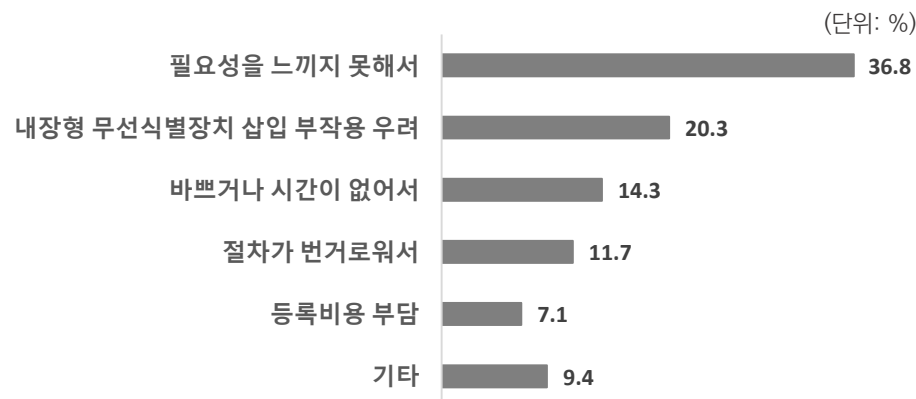
- 반려동물보험 가입시 개체 식별 및 연령 판별에 활용될 수 있는 등록률은 50% 내외
 - 반려동물보험 가입시 요구되는 반려동물의 사진만으로는 완벽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함
 -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이 어려운 이유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꼽힘

연도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신규등록 비율



자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반려동물 진료체계

- 동물병원 질병코드·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존재함
 - 동일한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 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선택하기 어려우며, 진료비 편차도 큼
- 보험금 청구시에도 보험계약자는 동물병원으로부터 전자적 서류가 아닌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하고 있어 불편함
-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가 부족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보상한도 산출 및 신상품 개발에 한계가 존재함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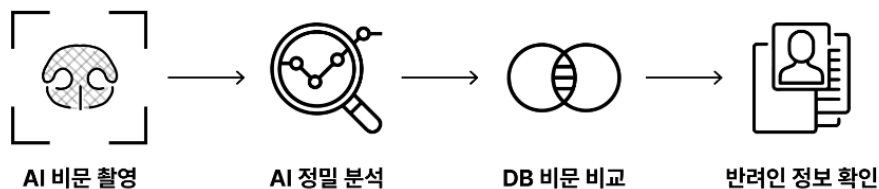
-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노력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과 보험회사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 진료항목 정비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청구 편의성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필요함
- 이러한 시장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동물병원은 의료시장 확대 등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보다 낮은 부담으로 보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이하는 보험-동물병원 협력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언

이해관계자	애로 사항	펫보험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소비자 (반려동물)	반려동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 어려움	낮은 부담으로 보험·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 가능
수의업계	동물 의료산업 성장동력 필요	투명한 진료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병원 경영으로 의료시장 확대 및 유효한 신기술 도입·확대 등 가능
보험회사	양질의 의료 데이터 집적 어려움 반려동물보험업 성장 필요	위험관리가 가능한 환경 하에서 반려동물보험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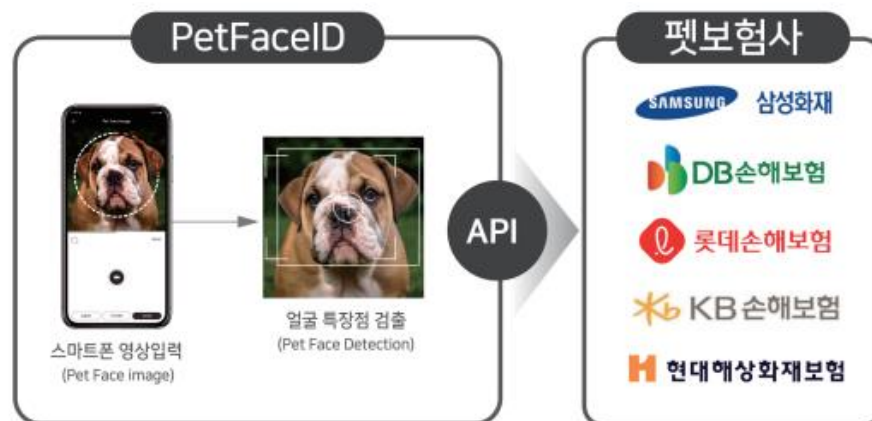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 생체인식 등 신기술 동물등록을 허용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반려동물 안면·비문인식 등록제도의 실효성 및 편의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동물등록 허용을 확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 제휴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률 제고가 가능함
 - 제휴 동물병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동물등록시스템 구축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고려
- ⇒ 소비자는 등록편의성 증대, 수의업계는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보험업계는 반려동물 개체 인식률을 제고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

비문인식 프로세스



안면인식 동물등록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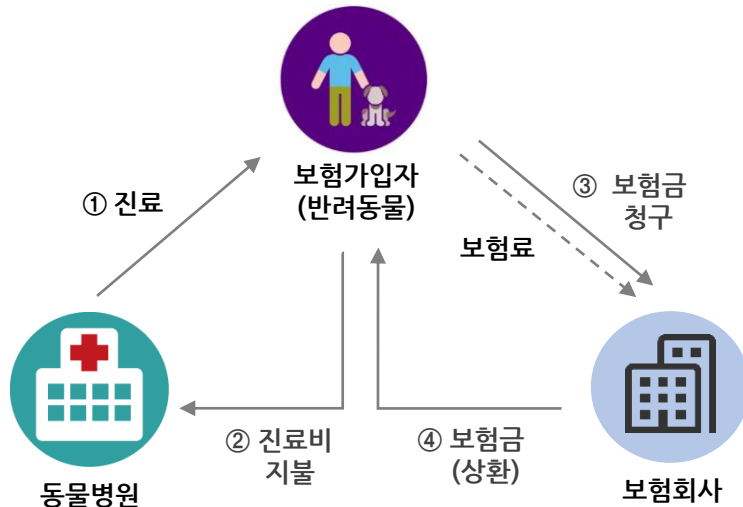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부 발급

-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부 발급을 통해 진료정보 축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기록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현재 다빈도 진료항목의 표준화를 농림부에서 추진 중
 -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진료기록 등의 발급·전송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검토 필요
 - 보험업계가 진료항목 정비, 청구서류 정비 등에 대해 동물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 동물병원은 진료기록 정비·관리 편의성 증대, 보험회사와 소비자는 과잉진료 방지를 통해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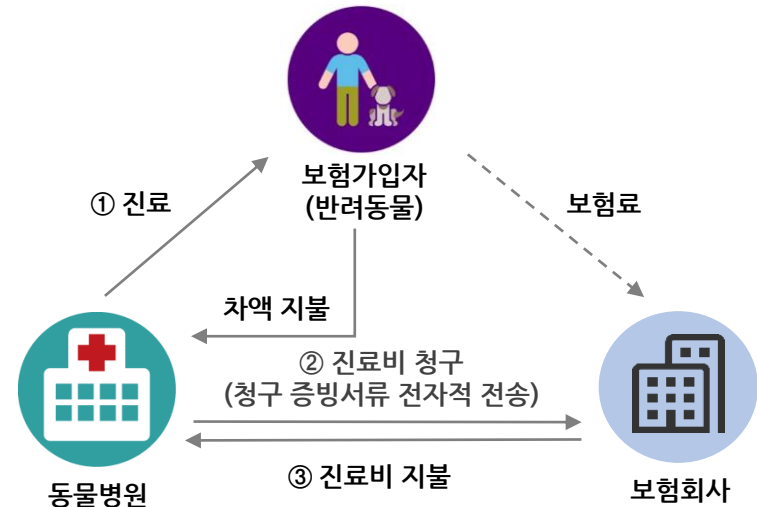
청구전산화

- 반려동물보험 청구전산화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심사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보험금 청구시 동물병원이 진료내역 정보가 부실한 종이 영수증 발급 대신 전자차트 기반 전자적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면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가 가능하며, 소비자 청구 편의성도 증대됨
 - (미국) Trupanion은 제3자 지불제 형태의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함

상환제



청구전산화(제3자 지불제)



보험회사-동물병원 네트워크

-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행위와 진료비(수가)를 협상하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과잉진료 및 부적정한 신의료기술의 적용을 방지하고, 임상적 필요에 따른 진료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제휴 동물병원과 적정 수가범위 또는 보장한도 등을 협상하여 진료비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
 - (영국) RSA Insurance Group은 상급 동물병원 진료의뢰(소개) 네트워크(preferred referral network)*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진료비용을 절감하고 반려동물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 *응급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보험회사는 제휴 동물병원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 집적 및 손해율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제휴 동물병원 대상으로 전자차트(EMR)를 연계하는 경우,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용이할 수 있음
- ⇒ **동물의료의 안정적 성장과 보험통계의 안정적 사용·운영, 소비자의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 가능**

맞춤형 상품 개발

- **보험회사는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종별·연령대별·질병특성별로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동에 따른 리워드 제공을 통해 보험상품 소구력을 제고할 수 있음
 - * 보험회사의 부수·겸영 업무로서 헬스케어, 돌봄 사업 등 펫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필요가 있음
 - 무사고 할인혜택(no-claims bonus) 등을 통해 의료 이용량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 시행초기 할인·할증의 적용은 충분한 경험통계 확보 후 또는 보험료를 매년 갱신하는 상품구조 하에서 고려해볼 수 있음
 - **보험회사 제휴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등록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
 - 동물병원에서 보험 가입·진료·청구가 One-stop으로 가능
 - 보험회사-동물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집적된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신규 보험상품 개발 가능
 - 보험회사 제휴 동물병원의 경우 위험관리가 가능하므로, 낮은 위험요인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책정 가능
- ⇒ 소비자는 다양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동물병원은 보험 판매 수익·리워드 기대 가능, 보험회사는 반려동물보험의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음

신규 시장참여자 진입

-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및 자회사 형태의 단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유인하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연간 총수입보험료(500억 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국내 환경을 감안하여 상품 심사, 외부 감사, 지급여력규제 등에서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사업(펫용품 커머스, 헬스케어 등)을 운영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에 비교우위를 가진 플랫폼·인슈어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통해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 **시장 경쟁 확대를 통해 산업이 발전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맺음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기대효과		
	소비자	동물병원	보험회사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등록편의성 증대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반려동물 개체 인식을 제고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부 발급	진료정보 접근성 제고 및 과잉진료 우려 감소	진료기록 정비·관리 편의성 증대	과잉진료 방지를 통한 손해율 관리
청구전산화	청구 편의성 증대	소비자 경험 개선을 통한 의료산업의 성장	수수료 등 비용 절감 (예: 제3자 지불제 도입시)
보험회사·동물병원 네트워크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	동물의료의 안정적 성장	보험통계의 안정적 사용 및 운영
맞춤형 상품 개발	적정 가격의 다양한 의료· 보험서비스 이용	동물병원에서 보험 가입·진료 ·청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험판매수익·리워드 획득	반려동물보험의 견실한 성장
신규 시장참여자 진입	시장 경쟁 확대를 통한 산업의 발전적인 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자 효익 증가		

감사합니다.